

제 1 교시

국어 영역

출수형

[1~2]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. 물음에 답하십시오. (화법)

사회자: 교내 음악 방송을 폐지하지는 의견이 학교 누리집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방송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. 그래서 ‘교내 음악 방송을 폐지해야 한다.’는 논제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. **입론**은 찬성 측에서 먼저 시작해 주시고 이후에 양측이 번갈아 가면서 발언해 주십시오.

찬성자 1: 교실에서 자습하는 학생들의 공부할 권리가 침해되므로 교내 음악 방송은 폐지해야 합니다.

반대자 1: 교내 음악 방송은 유지해야 합니다. 교내 음악 방송 폐지는 휴식 시간에 음악 감상을 하며 쉬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

찬성자 2: 교내 음악 방송은 빠른 템포의 댄스 음악 위주라 공부에 방해가 되고 그 음악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.

반대자 2: 음악 감상은 청소년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. 또한 신나는 댄스 음악을 듣는 것은 긴장감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.

사회자: 찬성 측은 공부할 권리를, 반대 측은 음악을 들으며 쉴 권리를 근거로 각각 음악 방송의 폐지와 유지를 주장했습니다.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먼저 **반론**해 주십시오.

반대자 1: 음악 감상이 학습 효율을 높여 준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습니다. 따라서 음악 방송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찬성 측의 주장은 억지 주장입니다.

찬성자 1: 억지 주장이라고요?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? 네?

사회자: 잠깐만요, 양측은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은 삼가 주십시오.

찬성자 1: 네.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조용한 음악이면 모를까 지금처럼 댄스 음악만 나오는 방송은 학습에 지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.

반대자 2: 짧은 방송 시간에 여러 장르 음악을 섞어 들으니, 지금처럼 댄스 음악만 들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게 더 낫습니다. 그게 아니면 청취 여부를 각 학급별로 선택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현재 교내 음악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곳은 교실뿐이니까 듣기 싫은 사람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면 되지 않나요?

찬성자 2: 우리에게도 도서관으로 가라고 하고, 반대 측은 지금처럼 교실에서 계속 음악 방송을 들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강요 아닌가요? 우리도 교실에서 편하게 공부하고 싶습니다. 음악 방송 청취 여부를 반별로 선택하게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, 도서관으로 이동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

사회자: 네. 양측의 반론 잘 들었습니다. 교실이라는 동일한 공간을 두고,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(하락)

1. 위 토론 과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**입론**에서 ‘찬성자 2’는 교내 음악 방송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을 지적하며 ‘찬성자 1’의 입론을 보강하고 있다.
- ② **입론**에서 ‘반대자 2’는 음악 감상이 청소년의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언급하며 ‘반대자 1’의 입론을 보강하고 있다.
- ③ **반론**에서 ‘반대자 1’은 음악 감상이 학습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며 입론의 ‘찬성자 2’가 제기한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.
- ④ **반론**에서 ‘찬성자 1’은 음악 장르 분류의 어려움을 들어 반론의 ‘반대자 1’이 제시한 논거를 반박하고 있다.
- ⑤ **반론**에서 ‘찬성자 2’는 도서관 개방 시간의 제약을 들어 반론의 ‘반대자 2’가 제시한 논거를 반박하고 있다.

2. 위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협상을 한다고 할 때, <보기 1>의 ‘찬성 측 교섭 범위’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<보기 2>에서 모두 고른 것은? [3점]

—<보기 1>—

협상의 당사자들은 서로의 교섭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, 이때 교섭 범위란 협상 당사자 자신의 목표점에서 최종 양보점까지의 영역을 의미한다.

찬성 측 목표점 반대 측 최종 양보점 찬성 측 최종 양보점 반대 측 목표점

—<보기 2>—

- ㄱ.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용한 음악으로 음악 방송을 편성한다.
- ㄴ. 학급별로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반별 음악 방송 청취 여부를 결정한다.
- ㄷ. 음악 방송을 듣기 싫은 학생들은 도서관으로 이동하여 공부한다.
- ㄹ.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내 음악 방송의 시간을 연장한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
- ④ ㄴ, ㄹ ⑤ ㄷ, ㄹ

[1~2] (문법)

1. <보기>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<보 기>

제5항

㉠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.
 예 어깨, 잔뜩, 살짝, 듬뿍, 몽땅

㉡ 다만, 'ㄱ, ㅂ'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,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.
 예 국수, 법석

제27항

㉢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.
 예 칼날, 꽃잎, 만사위, 흠이불

- ① ㉠을 보니 모음 뒤나 'ㄴ, ㄹ, ㅁ, ㅇ'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가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되어 있군.
- ② '납작'이 아니라 '납작'으로 적는 것은 ㉡의 '법석'을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.
- ③ '짹짹하다'가 아니라 '짹짹하다'로 적는 것은 ㉡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군.
- ④ '물뺨'이 아니라 '물뺨'으로 적는 것은 ㉡의 '칼날'을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.
- ⑤ '깎뚜기'가 아니라 '깎뚜기'로 적는 것은 ㉡의 '만사위'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.

2. <보기>를 바탕으로 어미의 선택 기준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? [3점]

<보 기>

ㄱ. 동수는 책을 빌리(러/려고/고자) 도서관에 갔다.
 ㄴ. 신간 도서를 빌리(러/*려고/*고자) 도서관에 가자.
 ㄷ. 동수는 책을 빌리(*러/려고/고자) 도서관에 예약을 했다.
 ㄹ. 영희는 그를 안 만나(*러/려고/고자) 집으로 돌아갔다.
 ㅁ. 지금 공원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(*러/려고/*고자)?

*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.

- ① ㄱ과 ㄴ을 보니 해당 어미 뒤가 어떤 종류의 문장인지를 고려해야 해.
- ② ㄱ과 ㄷ을 보니 해당 어미 뒤에 오는 서술어에 '이동'의 뜻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해.
- ③ ㄱ과 ㄹ을 보니 해당 어미 앞이 부정문인지를 고려해야 해.
- ④ ㄱ과 ㅁ을 보니 해당 어미가 종결 어미로도 쓰일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해.
- ⑤ ㄷ과 ㄹ을 보니 해당 어미 앞뒤 절의 주어가 같은지를 고려해야 해.

국평일 배포 자료 아침 자습 자료 5차

선택 영역 by 평가원 정답

2014.09 B형 화법 (2, 3) 1. ㉔ 2. ㉑

2011.수능 문법(14) 1. ㉔

2009.09 문법(11) 2. ㉔